

지역 소식통

김제시 4개 기업, '스타 선도·도약기업' 선정

김제시는 12일 도내 중소기업 선정·육성을 위한 2020년 전북도 스타·선도·도약기업 공모에 4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과 전북테크노파크 주관한 이번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기업은 스타기업에 (주)엔푸드, 선도기업에 (주)엔지식품, 도약기업에 내소날씨앤디(주), (주)엔시팅 4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지정된 기간 동안 집중 지원·관리를 받게 된다. 스타기업은 3년간 경영·기술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기술혁신 활동 지원, 상용화 R&D를 지원받게 되며, 선도기업은 5년간 기술개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과 맞춤형 컨설팅, 인력채용 플랫폼, 사내 창업, 리더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도약기업은 3년간 기술개발, 기업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선도기업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0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김제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검사로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서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관수동저울, 접시저울 및 판지저울, 전가식 저울 등을 검사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 계량기 사용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의 경우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폐기 처분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완주군, 전국 최초 4인 가구 4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예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신속하게 지급한 완주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전국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한 것은 완주군이 처음이다.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군 의회(의장 최등원)의 요청에 따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군과 의회가 긴급간담회를 지난 11일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로 자칫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 소진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합의했다.

군과 군 의회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 그 약속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완주형 2차 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40만원, 총 93억원 규모로 6월 제1차 정례회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완주군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군과 군 의회는 지난달에 4인 가구 기준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어, 이번 2차까지 더해지면 실제 완주군민 4인 가구는 총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물론 226개 기초단체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로, 그동안 재원을 비축해 온 완주군의 예산안축 노력의 이룰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주군은 2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 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완주형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을 관내로 한정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복안이다.

'완주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5월 12일 0시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지급방법은 완주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되며 신속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은 9월 말로 제한한다.

최등원 군의회 의장은 "지난달에 1차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2차 지원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이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올해 지역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린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9359억원 편성해 시의회 제출

김제시는 지난 11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2% 증가한 9,35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9,040억원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69억원(5.61%)이 증가한 8,831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4.43%)이 증가한 708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김제시 재난기반소득 83억원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위축된 소비를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함이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았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44억 1천만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8억 3천만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6억 5천만원, 고용유지지원사업에 6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실업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살비 구축(69억 6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지원(북부)(12억원) ▲화물,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8억원)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8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4억2천만원) ▲양식장 긴급 경영지원(2억원) 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제2회 추경추진에 힘써주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 큰 경제도약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황산면, 5월 이장회의 개최

김제시 황산면(면장 감갑구)은 지난 11일 당면 시정인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공익직불제 사항 등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이장회의를 실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 월요일에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설명하였고, 가족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5월 11일은 온라인으로, 5월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 관내은행 등을 방문하고 신청할 수 있어서 분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쌀·밭)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새롭게 개편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주요 지원내용을 회의를 통해 안내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에 의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실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평생학습 거점배움터와 소확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해 강좌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완주군민 평생학습 신청하세요”

평생학습 거점배움터·퇴근길 소확행 프로그램... 선착순 접수

완주군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평생학습 거점배움터와 퇴근길 소확행(小確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강좌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완주군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평생학습 거점배움터와 퇴근길 소확행(小確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강좌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평생학습 거점배움터 강좌는 지역 내 거점공간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총 6개 프로그램으로 페이퍼아트, 3D프린팅, 정리수납, 수채화일러스트, 초록식물가드너, 홈패션이며 용진을 소재 가족문화교육원과 복합 문화지구 누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학습 퇴근길 소확행(小確幸)은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소에 학습공간을 마련해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전연제품, 실크스크린, 가죽퀵트, 보태니컬, 도예, 양금플라워, 킬트공예, 홈패션 등 총 8개 프로그램이 삼례, 봉동, 이서, 고산 4개 지역에서 각 4차 시씩 운영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군민들은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메일(kchagwan@korea.kr)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며, 강좌정보, 수강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anju.go.kr) 또는 완주군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wan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전화문의는 완주군 평생학습팀으로 (290-2283) 하면 된다.

한편, 평생학습 거점배움터와 소확행(小確幸)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9월~10월경)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로컬푸드, 세균·방사능까지 잡아낸다

완주군의 로컬푸드가 더 간간해진다. 12일 완주군은 올해부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균 등 세균과 방사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 안전성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농약 위주에서의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인다.

현재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농약 320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 유통단계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니터링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 공공급식지원센터, 푸러미 등에서 판매 공급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완주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통한 안전한 농

산물 생산체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출하하는 모든 농가들이 과학농업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토양, 농업용수, 농작물 안전성 분석 후 재배, 출하하도록 하고,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MRL)에 따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경작지 주변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토양, 수질,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등 안전관련 분석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농작물 생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뢰"라며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프린트 NK 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